

# 2000년대를 향한 손해보험지표



尹 漢 錫  
〈고려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사장〉

## 1. 서언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주도형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왔으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고 있다.

이와같은 우리의 자신감은 지난번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2000년대를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에서 밝힌대로 2000년대에는 우리의 1인당 GNP가 5,000 \$ (84년불변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전망을 접할때 우리 손해보험업계도 우리나라의 2000년대상을 이룩하는데 상당한 몫을 기여할 것으로 추측이 되며, 또한 우리의 의지로서 기필코 선진한국의 건설에 손해보험이 미력하나마 동참하여야 할 명제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나마 이 소고를 초하게된 것이다.

## 2. 2000년대의 우리 경제지표

손해보험의 2000년대 지표를 개관하기 전에 2000년대의 한국경제의 전망을 살펴 보기로 한다.

전기 전망에 의하면 인구는 향후 15년간에 1,000만명 정도가 증가하여 2000년에는 4,935만명에 달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평균수명도 현재의 66세에서 72세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총생산에 있어서도 80년 기준으로 보아, 1984년에 804억\$ (49.1조원)이던 것이 2000년에는 2,520억\$ (147.1조원)이 되고, 1인당 GNP에 있어서는 1984년에 1,978 \$ (121.1만원)이던 것이 2000년에는 5,103 \$ (297.8만원)에 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수준이 되면 국민총생산에서 세계 15위, 무역규모에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발돋움 한다는 고무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요생활지표중에서 몇가지만 골라보면 자동차가 1983년현재 100명당 0.95대로 1대수준이던 것이 2000년대에는 26.4대로, 내구소비재인 냉장고도 100가구당 37.8대가 91대로, 세탁기는 100가구당 10.4대에서 88대로 주택보급율은 1983년의 67.6%가 2000년에는 82.2%로 확대되고 사회간접자

원인 도로포장율도 1983년의 35%가 90%로 신장하는등 괄목할만한 생활환경의 개선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다.

### 3. 2000년대의 손해보험의 지표

#### 1) 성장기반을 위한 선행조건

우리나라 손해보험이 2000년대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내재력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와 같은 외형달성을 위한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내실화를 위한 풍토조성과 협조체제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손해보험업계 임직원을 비롯한 대리점 모집인 등과 같은 판매부문의 종사자 전체인원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셋째, 경쟁원리의 도입에 의한 자율성장능력의 배양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 2) 부문별 성장지표

##### ① 시장규모의 성숙한 확대

2000년대의 한국경제지표를 근간으로 극히 거시적인 접근방법에 의하여 GNP에 대한 손해보험료 점유비를 추계해 볼때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년의 손해보험 대 GNP 점유비 1.32%를 약배증시킨 2.5%와 3%의 두가지로 볼 경우, 63.0억불 내지 75.6억불로 추계가 된다.

이것을 다시 생명보험을 포함한 보험전체의 점유비로서 7.5%와 8.5%로 추정하면 1984년 불변가격으로 189.0억불 내지 214.2억불의 추계치가 나오며 손해보험만으로는 현재의 영국수준에, 보험전체를 보면 현재의 프랑스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2000년대 손해보험료추계 (1984년 불변가격)

2000년의 GNP	GNP에 대한 손해보험료점유비	2000년의 손해보험료추계	참고(생명보험포함한전체)	
			GNP에대한 보험료점유비	2000년의 보험료추계
2,520억불	2.5%	63.0억불	7.5%	189.0억불
147.1조원	3.0%	75.6억불	8.5%	214.2억불

주: 1983년의 GNP에 보험료점유비 5.3%(손보 1.32%, 생보 3.98%)

##### ② Underwriting 기술의 정착화

손해보험사업은 직접접가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이 사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인수시의 위험선택의 양부가 보험경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위험선택제도나 수행능력이 미숙하여 만성적인 손해율악화와 보험분쟁사태의 주요인이 되어 왔었다.

따라서 손해보험선진화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양질위험의 인수추진과 불량위험의 선별능력강화, 그리고 위험에 상응한 인수체제의 정비등 Underwriting기술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③ 판매경로의 건실한 확충

손보업계는 1984년말 현재 1,143개의 점포에 16,370명의 모집인, 그리고 7,661개의 대리점을 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가동율, 생산성, 그리고 전문성에 있어서는 지극히 허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 점포의 수에 있어서도 지역별 경제력, 인구의 분포, 산업시설등을 감안한 점포수가 적정하고도 균형있게 정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리점, 모집인등 판매기구면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보험지식과 판매기법의 축적에 의한 전업유통망으로서의 기반구축이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한편 보험업법상으로 이미 도입이 된 Broker의 실제 활용도 시험단계를 거치고 중기 육성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특히 대리점, 모집인은 판매기술 뿐만 아니라 보험의 공공성, 윤리성, 복지성등에 입각한 정신적 측면의 자질향상으로 2000년대에는 불완전판매에 의한 분쟁사태는 거의 일소될 것으로 본다.

이밖에도 판매경로의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통신판매방법의 하나인 Direct mail에 의한 보험판매는 물론, 백화점등의소매망을 통한 점두판매가 부분적이거나 상당한 이용도를 높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보험상품의 특성이 부수된 종합금융체제의 일환으로 이른바 One-step Shopping이 가능한 종합판매망의 새로운 시도가 선보일 것이다.

##### ④ 보험상품의 질적 개선

현재의 손해보험상품은 보통약관이 국영문 합해서140개내외나 되고 특별약관도 국영문 합해서 1,000개를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 이렇게 수량으로서는 많으면서도 담보위험이나 인수조건등은 유사한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한번의 계약을 위해 인가된 약관도 있을

정도로 보험경영의 원칙인 「위험대량의 원칙」에서 본 대량판매면에서는 허약하기 이룰데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상품도 계속 정비, 간소화하고 단명한 상품의 Lift Cycle도 연장하는 상품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St. Hall 대학의 M. Haller 교수가 2000년대의 보험산업을 전망한 바에 의하면, 보험산업의 환경변화는 보험상품의 Package 화를 보다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새로운 위험수요에 대비한 신상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의 상품구조는 우리나라의 High-Tech-ology 산업과 기타 첨단산업으로 대변되는 새롭고 다양한 위험에 알맞은 신상품으로 추만하리라 예상이 된다.

이밖에도 2000년대의 보험산업은 종합금융화의 영향을 받아 저축적 기능이 포함된 상품이 존속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다만 현재의 장기손해보험상품이 지니고 있는 결함이 제거되고 생명보험과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위험보장부분은 손해율의 진폭이 낮고 자산운용기술의 효율화에 의한 계약자배당등으로 소비자의 구매유인이 촉진될 상품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분야의 상품은 생명보험과 직접적인 영역침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 ⑤ 보험요율의 합리적 수준 확보

보험요율에 있어서도 보험종목별로는 불균형이 크게 눈에 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율이 만성적으로 고등되고 있는 종목이 존재하지 않도록 요율산정의 합리성, 공정성, 과학성 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요율산정회의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각 원수사의 경험통계가 축적되고 이의 활용도가 높아짐으로써 보험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요율의 2중구조나 종목간의 불균형도 2000년대에는 완전히 불식될 것이다.

#### ⑥ 손보사정의 공정·신속성 확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사정업무는 보험상품

의 효과와 기능이 구현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2000년대의 손해보험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하는데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다.

따라서 금명간 발족할 보험업법상의 손해사정인제도를 조속히 정착케 하여 보험소비자의 보호와 보험단체의 정상적인 유지를 가능케 하는 공평한 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사정이 곧 보험시장의 확대에 필요한 촉매가 되도록 하는 적정무사하고 신속한 지급을 할 수 있는 사정기법(Tact)이 2000년대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⑦ 방재기능의 육성강화

손해보험회사의 간접적 기능중의 하나는 보험의 경영능력과 위험관리기법을 통한 방재기능에 있음은 보험선진국의 예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와같이 보험선진국에서는 보험요율 자체에 손해방지나 방재사상이 유도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각종 방재시험소나 연구소를 활용한 재해방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손해보험업계에서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부설된 방재시험소의 활용을 핵심으로 해서 손해보험을 매개로한 방재사상의 보급과 손해방지시설의 확충이 금세기말에는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⑧ 자산운용의 효율성 확보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자산운용은 2차적 기능으로, 금융기능으로서 보험회사경영의 안전판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1984년말 현재의 자산운용율은 7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있어 너무나 허약한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를 향한 15년동안에 자산의 구성내역을 개선하여 건실한 운용자산화를 지향함으로써 자산운용율을 90% 이상으로 유지시킬 방책을 모색해야 한다.

### 3. 결론

이상으로 2000년대를 향한 손해보험의 지표를 간략히나마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보험전문인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시설의 확충과 사무관리체제의 완벽한 전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대중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 가계나 기업이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